

‘더현대 광주’ 인허가 지연 우려에 “사실과 달라”

북구 “교통·재해·환경 분야 종합적·신중한 검토 필요”

“기준 따른 정당한 절차, 보완 완료 후 신속 허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들어설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의 건축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북구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광주 북구는 27일 “더현대 광주는 지역 첫 대형 복합쇼핑몰로 교통·재해·환경 등 시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며 “법령에 따

른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생활과 밀접한 교통·재해·환경 분야에 대한 검토와 보완 요청은 법적 기준·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행위이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 안전·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북구는 지난달 9개 부서, 16개 팀

으로 구 전방·일신방직 일원 개발 행위 허가 및 기반시설 실시계획 인가 데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후 전 과정을 국토계획법과 교통영향평가 지침 등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구는 “사업자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에는 연간 약 70회 경기가 열려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야구경기장의 교통량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누문·양동3구역 등 반경 2km 내 약 1만6000세대 개발 사업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현대 광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넘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신속한 검토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보완사항 이행·협의를 마무리되면 즉시 건축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정훈 북구의회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임시회에서 “북구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검토와 불필요한 서류 보완 요구 반복에 건축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김도기 기자

풍력발전단지 21곳, 제품 강화 검사 못받아

전남 ‘출하전 검사 시행’ 개정전 운전시작·착공

전남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21곳이 출하 전 당국의 제품 안정성 검사를 받지 못한 채 공사에 들어갔거나 상업 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화된 안전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풍력발전단지는 육상풍력 19곳(435.9MW), 해상풍력 2곳(465.3MW)이다.

육상풍력은 영광 6곳, 신안 5곳, 화순 2곳, 여수·순천·장흥·영암·무안·완도 각 1곳이다. 해상풍력은 영광 1곳, 신안 1곳이다.

법 적용에서 제외된 풍력단지에는 지난 21일 풍차를 받치는 지지대(타워)가 휘면서 꺾임 사고가 발생한 화순군 도암면 금성산 풍력 단지도 포함됐다.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제품 결함도를 낮추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출하 전 풍력발전기 주요 제품(블레이드·나셀·타워)

위의 성능을 점검하는 것이다. 성능·열강화도 시험 결과와 자체 성적서 등을 검사한다.

법 적용 기준은 2023년 4월 22일 이후부터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풍력발전단지다.

그러나 해당 풍력발전단지들은 법 시행일인 이전 이미 사전 기술검토를 받고 착공에 들어갔거나 운전을 시작해 제품 출하 전 제품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절차는 사전 기술검토를 받고, 통상 1~2달 안에 공사계획을 신청한 뒤 착공에 들어가는데 해당 단지들은 대부분 법 시행 이전 사전 기술검토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지역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115곳 중 해당 21곳을 제외한 육상풍력 단지 37곳과 해상풍력 단지 57곳은 강화된 안전법 적용을 받는 다. /김 호 기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광주, 민주시민교육 애니 제작

광주시가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광주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공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애니메이션은 어려운 법률을 시각화해 시민 이해를 높였으며 헌정사의 중요 순간을 그림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판결문 낭독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문의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

애니메이션에는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국회 내 계엄군·경찰 투입 논란’, ‘선관위 압수수색 위헌성 여부’, ‘탄핵소추안 절차적 흠결’, ‘현재의 판단 근거’ 등이 담겼다.

앞서 광주시는 선진국의 헌법 수호 제도를 소개하고, 5·17 계엄과 2024년 12·3계엄의 유사성을 비교·분석한 숏폼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교육용 콘텐츠는 ‘광주시 민주시민교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현재 결정문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며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 헌법 의식 함양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 소통과 참여형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주 기자



‘2025 광주방문의 해 성공 추진 업무협약’ 지난 25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선석현 광주시관광협회 회장, 이은형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 지회장, 박현길 대한숙박업중앙회 광주시 지회장과 ‘2025 광주 방문의 해’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도심숲 가득한 봄 향기...캠핑·나들이객 유혹

광주호수생태원·시민숲야영장·시립수목원

광주 곳곳에 조성된 ‘도심숲 공원’이 나들이객을 유혹하고 있다.

광주시는 피크닉, 캠핑 등을 즐기며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도심숲 공원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주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된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걸으며 봄별을 즐길 수 있는 산책 명소다. 휠체어, 유모차 대여가 가능해 가족들이 나들이 할 수 있다.

지난해는 산림청이 주관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올랐으며 테마별 꽃단지에는 진달래, 장미, 철쭉,

수국 등 형형색색의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다.

광주시립수목원은 바쁜 일상을 벗고 도심 가까이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여유롭게 힐링할 수 있는 곳이다. 시립수목원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숲해설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숲해설가가 참여자와 함께 수목원을 돌며 숲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인 산림 탐방을 도와준다.

또 전시온실에서는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열대 식물과 인공폭포, 분수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김도기 기자

도심 속 힐링 명소인 승촌보 캠핑장은 세척대, 화장실, 샤워장, 전기시설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최대 2박3일 머무를 수 있다.

인근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야외 물 대형 미끄럼틀을 갖춘 놀이터와 함께 드넓은 운동장이 있어 가족 단위 캠핑도 가능하다.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이용료 30%가 할인된다.

광주 북구 월출동 시민의숲 야영장은 어린이놀이터, 자전거길, 산책로가 있어 가족단위로 방문하기 좋은 도심 속 쉼터다. 폐선부지를 활용해 조성된 푸른길공원도 따뜻한 햇살 아래 봄 산책을 즐기 좋은 명소 중 한 곳이다. /김도기 기자

‘2025 광주방문의 해 성공 추진’ 협약

관광·숙박·외식업계

광주시는 지난 2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지역 관광·숙박·외식업계와 ‘광주방문의 해 성공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대한숙박업중앙회 광주시지회, 광주관광협회가 참여했다.

협약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 2025광주현대세계(장애인) 양궁선수권대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숙박·여행·쇼핑 등에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방문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친절·청결·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특화 관광상품과 축제·행사·이벤트 등을 공동 홍보한다.

광주를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민·관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광주시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모티브로 한 관광상품 ‘소년의 길’과 프로야구와 결합한 관광상품 ‘야구광 트립’을 출시했다. 세계질 내내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G-페스타 광주’도 추진하고 있다. /김도기 기자

광주 평생교육이용권 확대...2788명 선정

어르신·디지털 소외계층 포함

광주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만 지원했던 ‘평생 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노인과 디지털 소외계층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평생 교육이용권은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수강료와 교재비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1, 2차로 나뉘어 일반이용권 2067명, 장애인이용권 280명, 노인이용권 196명, 디지털이용권 245명 등 총 2788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조선주 기자

1차는 다음달 14일까지 광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19세 이상)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차는 오는 6월 중 65세 이상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일반이용권은 광주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장애인이용권은 보조금24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조선주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매,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